

■ 주요 뉴스: 트럼프 대통령, 중국과의 정상회담 취소 및 관세 대폭 인상 위협

- 트럼프 행정부, 정부 섯다운 속 대규모 연방직원 해고 감행
-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기대인플레이션, 전월대비 하락
- 연준 위원들, 추가 금리인하 지지 속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對中 관세 인상 위협,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등이 영향 주가 하락[-2.7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1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미-중 무역긴장 고조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1.3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중국과의 무역갈등 확대, 소비자심리지수 약화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+0.5%, 엔화 가치는 +1.2%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하락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6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32.0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4.1원, 0.9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10/10일	10/9일	전일대비			10/10일	10/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552.5	6,735.1	-2.71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3%	4.14%	-11bp
	유럽	564	571	-1.25%		독일	2.64%	2.70%	-6bp
	중국	3,897.0	3,934.0	-0.94%		영국	4.68%	4.75%	-7bp
	일본	48089	48580	-1.01%	CDS 5y	한국	25bp	24bp	1bp
	한국	3610.6	(휴장)	-		중국	46bp	41bp	5bp
환율	달러지수	98.978	99.538	-0.56%	위험 지표	EMBI+	302	292	10bp
	유로화	1.1619	1.1564	0.48%		VIX	21.66	16.43	31.83%
	엔화	151.2	153.1	1.24%		WTI유	58.90	61.51	-4.24%
	위안화	7.1353	7.13	-0.07%	원자재	구리	489.40	512.30	-4.47%
	원화	1421	(휴장)	-		금	4017.8	3976.9	1.0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 대통령, 중국과의 정상회담 취소 및 관세 대폭 인상 위협

-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적대적이라고 평가하며 10월 예정된 정상회담 취소를 위협한 데 이어 11.1일부터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0%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
- 미-중 양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카드 확보 노력을 강화. 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,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 지속에 이어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부과, 쿼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시행
- 미국도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고, 상원에서는 Nvidia·AMD가 자사 제품을 중국보다 미국 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트럼프 행정부, 정부 셋다운 속 대규모 연방직원 해고 감행

- 예산관리국장의 “감원 조치가 시작됐다”는 게시글 이후 보건복지부, 국토안보부, 상무부 등에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. 연방 공무원 노조는 행정부의 영구적 감원 계획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
- 셋다운에도 9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24일 발표될 예정. 이는 미국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에 동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

■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·기대인플레이션, 전월대비 하락

-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5로 전월(55.1)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예상(54.2) 상회. 소비자기대지수도 51.2로 전월(51.7)대비 하락.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의 경우 9월 4.7%→10월 4.6%로 하락, 5~10년은 3.7%로 전월수준 유지

■ 연준 위원들, 추가 금리인하 지지 속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

- 윌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 약세가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나, 노동시장 약세와 강한 경제성장 간 괴리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
-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 약화에 대비해 추가 인하에 열려 있으나,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

■ EU, 미국과 협력해 무역협정의 다음 단계 시행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계획

- EU의 규제 자율권을 지키기 위함. EU와 미국은 협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

■ 마크롱 대통령, 르코르뇌 총리 재임명

- 중도 성향의 동맹인 르코르뇌 총리를 재임명했으나, 의회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어 내각 구성과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

■ 일본 자민당-공명당 연정, 26년만에 붕괴

-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26년동안 유지된 연정이 붕괴. 이는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은 자민당을 더욱 약화시키고, 예산안 및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등 의회 내 혼란 심화 예상
- 한편 일본 내각관방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성 장관의 통화 이후 성명을 통해 “마-일 양측은 무역협정의 성실하고 신속한 이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마-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”고 발표

■ 브라질 5년 CDS, 재정 및 신용 우려로 15bp 급등

- 브라질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상수지와 신용시장의 취약성이 관찰(Rabobank). 작년 12월, 공공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브라질 5년 CDS는 '23.5월 이후 최고치인 220 이상으로 상승한 바 있음

■ 아태 지역에서의 연이은 예상외 금리결정, 경제 불확실성 시사

- 이번주 뉴질랜드 50bp 인하(-25bp 예상), 태국 금리동결(인하 예상), 필리핀 25bp 인하(동결 예상) 등 3곳의 중앙은행이 예상과 다른 금리 결정을 단행.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무역 및 국제 정책으로 인해 대내 경제 및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

■ 러시아,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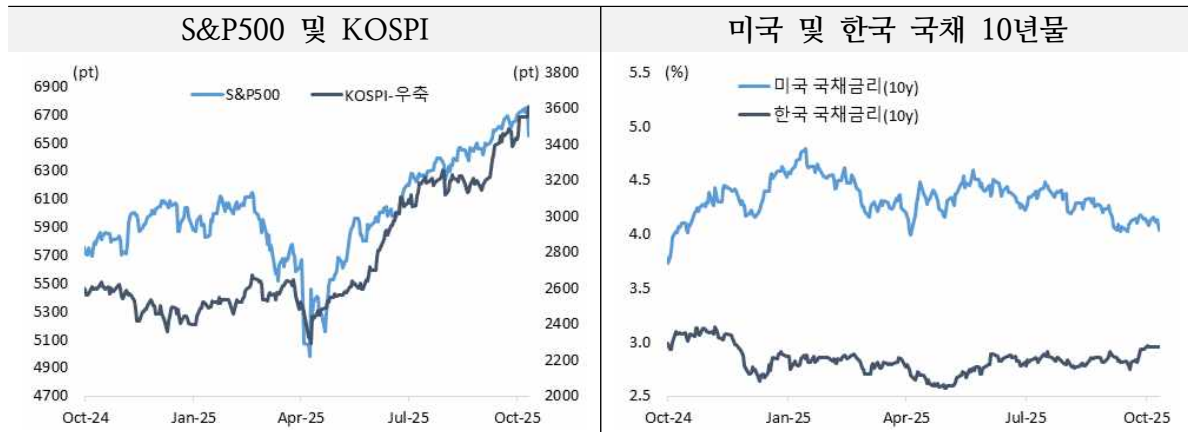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. 공격 지속에 따른 천연가스 생산량 축소로 우크라이나는 연간 소비량의 20%에 달하는 규모(44억m³, \$23억)를 구입해야 할 가능성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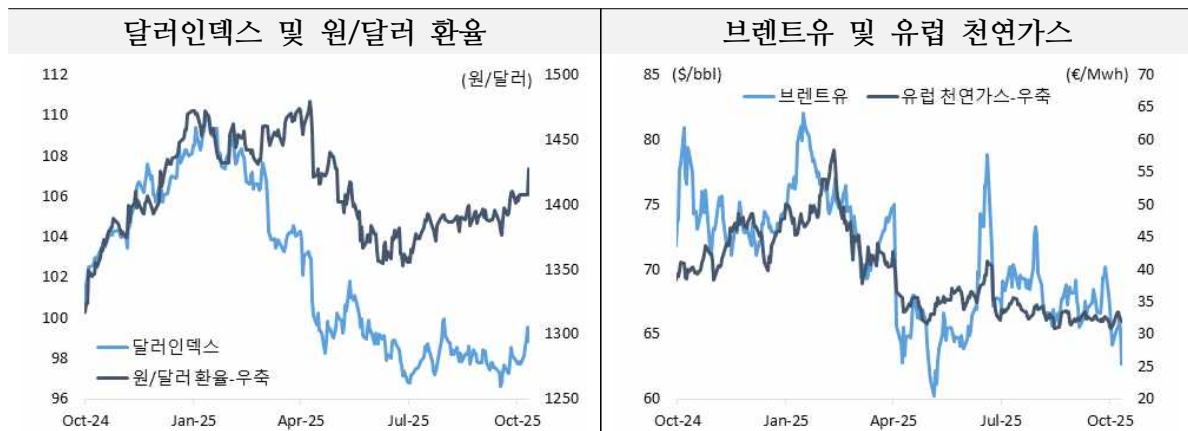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10/12~10/18)

- 중국 무역수지·CPI·PPI, 유로존 HICP·산업생산, 일본 산업생산 등
- IMF 세계경제전망, 미국 대형은행 실적, 연준 인사 발언(파월, 월러 등), 미국 목재(10%) 및 목재 가구(25%) 관세 발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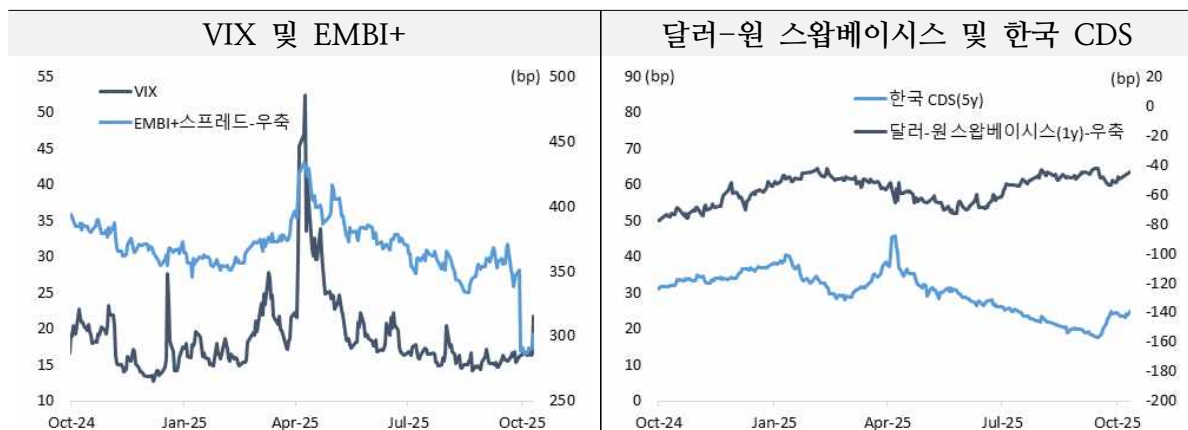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yshwang@kcif.or.kr